

세계성찬주일
헌금 전 이야기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거룩한 삶을 위한 자양분

연합감리교인들은 다른 전통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세계성찬주일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교단이 하나임을 기억하고 일치와 평화의 정신으로 모든 기독교인이 연합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193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많은 교회가 특별헌금에 함께 참여하며, 이 헌금은 장학금, 훈련, 멘토링을 통해 전 세계의 학생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세계성찬주일 헌금은 매년 교단적으로 행해지는 여섯 개의 특별선교헌금 중 하나입니다.

본 자료를 개 교회의 세계성찬주일 예배의 선교적 목적에 맞게 각색하여 활용하십시오. 함께 제공된 [예배자료](#)와 [설교자료](#)를 통해 예배의 모든 부분이 한 흐름 안에 있게 하십시오.

오 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양육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세계성찬주일 특별헌금은 전 세계의 연합감리교회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마련을 위해 쓰입니다.

예를 들어, 미시시피 출신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카일린 트래비스(Kaelin

Travis)는 토양 보존 전문가가 되기 위해 알콘 주립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 교단의 소수 민족 장학금과 아울러 그녀의 교회로부터 얻는 사랑과 정신적 지지가 학업에 큰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전문적으로 환경을 돌보는 일 외에도 그녀가 소망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



헌금 전 이야기

미래를 위해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언젠가는 제가 대학생들을 후원하게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들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젊은 지도자들을 후원함으로써 “미래를 위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란젤(David Rangel)은 멕시코의 저소득 지역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공과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한 연합감리교회와 협력하여 진행된 미국 선교여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가 신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이후 목회학 박사과정에 진학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세계성찬주일 지도자 장학금이 그의 꿈을 후원하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세계성찬주일 장학금을 통해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의 무조건적 지지를 느꼈습니다. 또한, 풍성한 나눔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계성찬주일인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연합감리교인들이 함께 드리는 예물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것을 특별히 경험하고 기념합니다.

이번 총회 회기 동안(2017-20) 연합감리교회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신흥 지도자들의 꿈과 소망을 위해 이백이십만 달러(\$2,200,000) 이상을 후원해 왔습니다.

우리의 적극적 후원은 전 세계의 재능 있고 유능한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도록 준비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